

암 정복은 가능한가

양정현 / 삼성의료원 일반외과

우사 이래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권력다툼과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간은 권력과 영토에 대한 정복욕이 대단하였다. 이러한 정복욕도 근본적으로는 잘 살기 위한 욕구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인간의 잘 살기 위한 노력 중 지금도 해결되지 못한 것이 질병과 빈곤, 그리고 자연재해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질병을 정복하고 늙지 않고 무병장수 하려 한 절대 권력자였던 진시황도 결국은 쓰러졌으니 인간의 한계가 엄연함을 보여주는 한 본보기일 것이다.

그러나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노력이 마냥 실패만 해온 것은 아니다. 질병과 의학과의 쫓고 쫓기는 싸움으로 이루어진 것이 의학의 역사이다. 즉 어떤 질병의 원인과 치료법이 발견이 되면 또 새로운 질병이 나타나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곤 하였다.

과거 중세기까지는 급성전염병, 즉 마마, 페스트, 콜레라 같은 역질들이 인류를 덮쳤지만 파스퇴르를 비롯한 세

균학자들의 노력으로 원인과 예방치료법이 개발되어 어느 정도 전염병들이 수그러들자 이제는 암, 심장병, 에이즈 같은 성인병 또는 소모성질환들이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결핵이 그러하듯 암도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인간의 4명 중 한명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한다.

미국에서는 300만 명 이상, 영국에서는 10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암에 시달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매년 6만 명의 신환자가 발생하고 약 40만 명 내지 50만 명 이상의 암환자가 있지 않나 추정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결핵의 이환율과 비슷하다 하겠으나 암은 결핵보다도 치명률이 높고 점점 증가 추세에 있음이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고대의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들이 암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허준의 「동의보감」에 반위라 하여 위암에 관한 언급이 있어 일찍부터 암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서양에서 암에 관하여 병리학 적 정의를 내려지고 세포학적 본태가 밝혀진 것은 18세기 이후이다. 그 뒤 영국의 퍼시벌포드(Persibulford)가 골똥 청소부에게 고환암이 생기는 것을 발견하여 골똥검댕이 속에 있는 물질이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일본의 야마기와가 토끼귀의 일정부위에 콜타르를 계속 발라 피부암을 일으키는데 성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러한 암의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고 있지 않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인류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까지 담배, 배기가스, 화공약품, 농약, 인공 감미료, 식품첨가물, 일부의 약품 등 화학물질과 방사선, 바이러스, 자극 및 손상, 유전 등이 암의 발생 원인과 관계있다고 추측되고 있다. 이 중 환경요인이 암발생 원인의 80% 정도를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1 참조).

우리나라에서 암이 공포의 대상으로

[표 1] 암발생에 기여하는 요인과 기여도

| 요 인 | 기여도 (%) |
|---------|-----------|
| 식사 | 30 |
| 담배 | 15(12~20) |
| 성과 생식 | 10 |
| 일광과 자외선 | 5 |
| 방사선 | 3 |
| 감염 | 2 |
| 직업 | 2 |
| 공기오염 | 1 |

부각된 것은 해방 이후이다.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981년에는 17,599명이던 것이 1991년에는 38,351명으로 늘어났음을 통계청 자료는 보여 주고 있어 암은 각종 사인 중 제일 첫째로 꼽히고 있다.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간암의 경우 세계에서 가장 많고 위암은 세계4위, 폐암, 유방암도 점차 증가 추세에 있다.

보사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 종합 병원을 대상으로 한 암환자 등록자료에 의하면 1991년도에는 총 51,730명의 암환자가 등록되었다. 남자의 경우에는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식도암이,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위암, 유방암, 대장암, 폐암이 5대암으로 꼽히고 있다.

그럼 암의 치료현황은 어떠한가?

암에 관한 치료법은 1950년대까지는 외과적 수술요법과 방사선 치료요법 같은 국소적 치료법에 의존하여 오다가 1980년대에 호르몬요법과 항암제를 이용한 화학요법의 전신요법이 이용되고 그 이후 면역요법과 유전자요법 같은 초과학적인 치료법들이 개발 과정중이거나 일부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치료법의 발달에 힘입어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암환자의 생존율은 꾸준한 상승을 보여 2000년대에는 5년생존율이 60%로 예측되고 있어 암은 이미 불치의 병은 아닌 것이다(표2 참조).

그러나 암환자의 5년생존율이 점차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암을 완

[표 2] 암환자 생존율의 변화

| 연 도 | 5년생존율 (%) |
|------|-----------|
| 1900 | <5 |
| 1949 | 25 |
| 1968 | 33 |
| 1978 | 42 |
| 1985 | 50 |
| 2000 | 60 (추정치) |

치시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음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아직 암이 정복되었다고 말하기에는 요원한 감이 없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발간된 향후 의학발전 을 예견한 책자에 의하면 2030년경에나 가서야 암이 정복되고 인간수명은 150세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암의 정복이 30~40년 후가 되리라 생각할 때 현재의 우리는 폐암의 원인으로 판명되는 담배의 금연이나, 간암의 원인이라 여겨지는 간염의 예방 같은 확실한 원인에 관한 일차 예방법과 이차 예방, 즉 원인은 모르지만 암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완치를 기대해볼 수 있는 방법들 도모해야 최선일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암에 대한 조기 증상(표3참조)을 항상 숙지하여 빨리 병원을 찾고 정기적인 진단을 받는다면 암은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조기치료를 받으면 대부분의 암은 완치를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현재로서 암을 정복하는 최선의 길인 것이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의학자들이 암

[표 3] 암의 7대 경고 증세

1. 대변이나 소변보는 습관이 평소와 달라질 때
2. 잘 낫지 않는 흠집이 피부에 있을 때
3. 몸에 비정상적인 출혈 또는 분비물이 있을 때
4. 유방 또는 어딘가에 멍을 또는 비후가 있을 때
5. 소화불량이나 삼키는 데 이상이 있을 때
6. 피부의 점이나 사마귀가 갑작스런 변화를 일으킬 때
7. 자꾸 기침이 나오거나 목소리가 쉰 때

정복을 위해 부단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 암정복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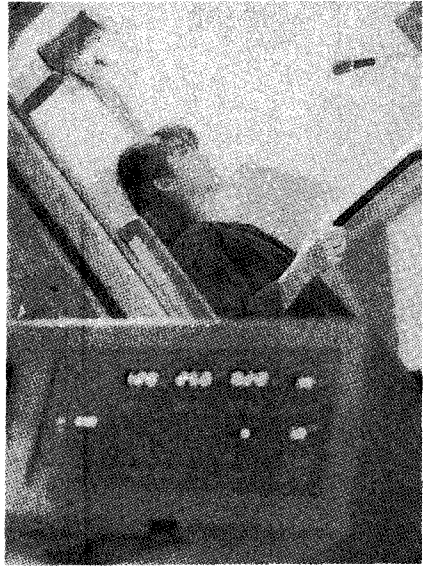
우리 모두 종두를 발견하여 지구상에서 천연두를 사라지게 한 제너처럼 훌륭한 의사가 암분야에서 빨리 나오기를 기원해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암협회에서 제정한 모호하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 할 수 있는 암예방수칙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암 예방수칙(대한암협회 제정)

1. 편식하지 말고 영양분을 골고루 균형 있게 섭취한다.
2. 황록색 야채를 주로 한 과일 및 곡류 등의 섬유질을 많이 섭취한다.
3. 우유와 된장국의 섭취를 권장한다.
4. 비타민 A, C, E를 적당량 섭취한다.
5.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과식하지 말고 지방분을 적게 먹는다.

6. 너무 짜고 매운 음식과 너무 뜨거운 음식은 피한다.
7. 불에 직접 태우거나 훈제한 생선이나 고기는 피한다.
8.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음식은 피한다.
9. 술을 과음하거나 자주 마시지 않는다.
10. 담배는 금한다.
11. 태양광선, 특히 자외선에 과다히 노출되지 않는다.
12. 땀이 날 정도의 적당한 운동을 하되 과로는 피한다.
13.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한다.
14. 목욕이나 샤워를 자주 하여 몸을 청결하게 한다.



위암여부를 진단해 낼 수 있는 위 내시경 검사

1994년도 세계보건기구 (WHO) 표방 표어

“구강보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ORAL HEALTH FOR A HEALTHY LIFE”

1994년도 보건의 날 표어

- 건강있고 후회말고 건강할때 잘지키자
- 건강과의 만남 행복과의 포옹